

# 사설

## 미래불교 가꾸는 이들

미래의 불자들을 키워내는 불자들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은 불교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크게 걱정해오는 일이다. 어린이 포교, 군포교 등 미래의 불교를 결정하는 분야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투자는 다른 종교에 비하여 너무도 부족하며, 이러한 양상이 계속된다면 지금 대형의 불자들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미래의 불교는 황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커다란 사찰들과 부처님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참배할 불자들이 없다면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너무나 비관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나, 우리 불교계가 그동안 보여온 행태가 이런 우려를 낳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나밖에 없던 어린이불교집지가 교계의 무관심과 방치 아래 폐간되고 말지 않았던가. 새싹 포교를 위한 유치원 시설 등에 대한 타 종교와의 비교 수치를 보면 또 어떠한가.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불교 신도의 비율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극단적인 우려를 잠재우며 불교가 아직 소생력이 있다는 희망찬 증거가 될 수 있는 움직임들이 요즈음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일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교계에서 개최되는 어린이 지도자 연수교육이 다양해지고 있고, 또 참여율도 증강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어린이들에 대한 포교는 '큰 스님'들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불교가 젊은 층과 어린이층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관심과 취향에 맞게 불교를 가공하여 전하지 못한다는 점일 것이다. 아직도 불교가 쓰고 있는 구시대적인 너울, 이것, 저것은 층들에게 불교를 멀게 느끼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젊은 층, 어린이 층에 뛰어 들어가 그들과 직접 호흡을 같이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지도자의 양성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바로 이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불교의 앞날에 커다란 희망을 느끼게 한다.

교계는 이러한 희망찬 움직임에 더욱 힘을 보태어 그것이 큰 흐름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도자 양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그렇게 양성되어 나온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무대를 더욱 더 많이 확보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도자들이 불교계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나아가서는 평생을 몸비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린이 포교에 힘을 바치다, 고군분투의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은 비분의 눈물을 삼켰던 많은 분들이 있다. 이러한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이어져야지, 그렇지 못해 새롭게 일어나는 이러한 움직임이 사그러들게 된다. 또 긴 세월의 암담함이 계속될 것이다.

이 기회에 교계는 미래 불교를 좌우하는 어린이 포교문제에 대해 일대 의식의 전환을 이루어야만 한다. 부처님 앞에 자신의 자녀를 위한 기도 드리는 일 못지 않게, 직접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포교사업에 힘을 보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 '복'을 짓는 일임을 교계 지도층들이 앞서서 천명하여야 한다.

그러하여 개인 의식을 지니게 된 불자들의 힘이 모여 교계 어린이 지도자들이 몸바쳐 봉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는, 밝히는 불교의 앞날을 일구어내야 하겠다.

# “교육기간-교과과정 조정 필요”

조계종 교육원(원장 압도)이 5월 1일~20일까지 기초교육기관인 행자교육원 운영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자교육원 개선의 우선순위로 '교육기간의 조정(37.3%)', '교과과정의 개선(31.4%)', '교수방법의 개선(22.5%)' 등이 지적됐다. 전국 교육 교역자, 본사 소

### 조계종 '행자교육원 운영 개선' 설문 의제·호칭 구분 60% 이상 찬성

입자, 종회위원, 전문교육기관 학인 등 1백14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행자를 단순한 노동력이나 문중 세력확장 수단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45.7%)면 기대학의 현황과 과목을 위한 순회강연을 범주사를 시작으로 실시한다"면서 "새 의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찰에 대해서는 총무원 호법부와 교육원이 합동으로 실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주제와 '보광스님(동국대 교수) 특강도 진행됐다.

서, 종단적 교육 내용과 제도의 통일성 결여(22.9%)를 가장 큰 행자교육의 문제점이라고 답했다.

행자교육원 교과과정의 문제점으로는 44.9%가 교과목이 너무 형식적이라고 답했으며, 14.3%는 교과목 과다를, 13.3%는 교재간 체계성과 통일성 결여를 들었다. 또 기초교육과정에서의 필수 이수과목으로는 위외문·습의 14.8%, 사미(니)율의 13.9%, 부처님 생애 9.4%, 초발심자경문 8.2% 등의 순으로 꼽았다.

행자의 출가사찰에서의 수학기간에 대한 설문에서는 47.3%가 현재의 6개월이 적당하다고 답했으나, 1년으로 연

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43.8%로 나타났다. 행자교육원에서의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3주에서 1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대답이 30.6%였으며, 23.1%는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행자교육의 관리방향을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0%가 사찰, 본사, 행자교육원의 현재 방식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중인 의제구분에 대해서는 68.2%가, 스님과 사미(니) 호칭구분에 대해서도 6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원은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5일 '행자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9월 열리는 제15기 행자교육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nia.com>

### 쌍계사 후임주지 고산스님 추대



조계종 제13교구 쌍계사는 선곡스님의 사임으로 공석중인 주지에 고산스님을 추대했다. 쌍계사는 6월 26일 산중총회를 열고 현 조실인 고산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임연태 기자

### 설조스님들 심리 보류

#### 조계종 재심호계원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고산)은 2일 불국사주지 설조스님 등 9명이 청구한 재심을 심리했다. 재심호계원은 불국사주지 설조스님과 전 송광사주지 현고스님, 종회위원 법일스님, 진현스님의 심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또 5월 11일과 22일 열린 초심호계원에서 재적받았던 해선스님(관음정사주지)과 공평정지판결을 받았던 법조(고문사주지 3년) 지성(육천사주지 1년) 영수(간봉사주지 5년) 원정(운봉사주지 1년)스님들에 대해서는 문서견책을 의결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nia.com>

### 정각회 새 회장 추천 임원회의 9일까지 협의

국회 정각회(회장 서석재)는 3일 임원회의를 갖고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서석재회장의 후임자를 9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권익현 김명운 고문 전용원간사장 하순봉 조성준간사장은 서석재회장에게 새 회장 선출문제를 일임하기로 했다. 현재 박상규 국민의회의 연동회 회장, 박철원 자민연 회장, 국민신당 서석재의원에 새 정각회장에 뜻을 두고 있다. 김원우 기자  
<kwkim@buddhania.com>

## 군복입고 서울역서 선교행위

### 종교편향대책위, '공공장소 선교금지' 촉구

인파가 많이 돌리는 공공장소에서 개신교 군중사병들이 군복을 입은 채로 선교행위를 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병 0사단 개신교군중사병 40여명은 6월27일 오후2시부터 30여분 동안 서울역 정문옆 광장에서 3월로 줄을 맞춰 기타를 치며 찬송가를 부르면서 선교행위를 했다. 이들은 특별휴가를 얻어 25~27일 경기도파주의 한 기도원에서 열린 '98기독교인 영성수련회'에 참석하고 귀대하는 중이었다. 지난해 12월에도 개신교군중사병들이 서울역 앞

에서 선교행위를 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군중실은 1일 "현재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교편향대책위원회(공동대표 송강, 원혜스님)의 한 관계자는 "지나친 선교행동이 우리 사회 종교갈등 및 종교불신의 한 원인이자"라고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개신교 군중사병 40여명이 정복을 입은 채 서울역 앞에서 선교행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 성경책에 손엮고

### 송파구청장 취임선서

구청장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해 지역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 송파구 김성순구청장은 1일 구청내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것. 김성순구청장은 이번이 민선 두번째 취임식. 김구청장은 지난 취임식에서 이같은 행동으로 인해 물의를 빚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구청내에서 개인적인 신앙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파구청 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취임식에서도 그랬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ania.com>

장미 직접 취임선서를 특정종교에 의지해 진행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계에서 이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분개했다. 또 구청의 한 직원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고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편향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 中信會 '사공이 들'

### 송회장, 직대체제 불인정 사표반려

중앙신도회 대표가 누구냐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재건회장이 소집한 운영위원회에서 송회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김한곤 직무대행체제를 인정치 않기로 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34명의 운영위원 가운데 송재건회장을 비롯 13명의 운영위원들이 참석(9명은 위임) 이날 운영위원회는 △송회장이 김한곤부회장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지명한 것은 회칙에 위배된 것을 확인하며, 지명자체가 무효이며 △송회장과 김부회장 사이에 이루어진 업무인

계인수는 회장직 인계인수가 아니라고 결의했다. 또 송회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직무대행체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송회장은 이같은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을 6월31일 총무원에 보고했다.

송회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사의에는 변함없다"며 "멀지 않은 시기에 회장대행체제를 세우고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의 중앙신도회 담당관계자는 2일 "김한곤 직무대행을 인정한 6월22일자 공문은 '김한곤 회장직무대행을 선임했다'는 중앙신도회의 보고에 입각한 것"이라며 "종단은 합법적인 회장이 들어설 때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총무원의 이같은 입장은 '대의원총회 개최, 새 회장 선출'이 문제해결의 방법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운 기자

전도사 100명

## 현대만평



스님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737-8881

· 燒身供養 肉身登空 ·

# 僧正 沖湛堂 圓相大宗師 추모법회 안내

- 人事 말씀 -

「韓國佛教太古宗 僧正 沖湛堂 圓相大宗師 추모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初齋	: 7월 3일 10시	승가사(서울 왕십리)
二齋	: 7월 10일 10시	승가사(서울 왕십리)
三齋	: 7월 17일 10시	승가사(서울 왕십리)
四齋	: 7월 24일 10시	승가사(서울 왕십리)
五齋	: 7월 31일 10시	승가사(서울 왕십리)
六齋	: 8월 7일 10시	승가사(서울 왕십리)
七齋	: 8월 14일 14시	호명산 감로사

신당동

승가사 약도 ☎292-3418

호명산 감로사

호명산 감로사 약도 ☎0356)84-0117

※ 49재 당일 9시 30분에 승가사에서 버스 출발.  
※ 49재에 동참하는 분께는 「염불」책자 법보시함.

恩法上座 李智性      門徒代表 李道性 · 林慧山

## 韓國佛教太古宗 僧正阮葬 葬儀委員長 洪印谷

韓國佛教太古宗 僧正 沖湛堂 圓相大宗師 永訣式을 지난 六월 二十九日 虎鳴山 甘露寺에서 四部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엄숙하고 여법하게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葬禮에 동참하시어 物心 양면으로 협조를 해주신 元老대스님을 비롯한 신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芻花와 芻燈등 芻意를 보내 주신 人士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沖湛스님의 燒身供養에 대한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신 각계 언론사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올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압니다만, 우선 이렇게 지상을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海諒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기 2542년 7월 일